

빚 못 갚는 서민 늘었다... 금융권 부실도 우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자를 비롯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머니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8.0%로 전년 동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6%포인트 올랐다.

대형 대부업체 신용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192개 대부업체를 말한다. 이들은 전체 대부업 대출의 잔액 기준 82%를 취급하고 있다.

연체율 상승은 상호금융권에서도 나타났다. 올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대출 연체율은 2019년말에 비해 0.31%포인트 상승한 2.02%를 기록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3.6%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결과다. 유예 지원이 마무리되면 추후 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침체 장기화로 금융 취약층이 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제2금융권과 대부업은 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신용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금융업체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계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내년에도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자수 9개월째 '감소'

코로나 고용 한파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달에도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기간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올해 3월부터 9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6만6,000명)과 숙박·음식업(-16만1,000명)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다만 전달(10월)에 비해 감소폭은 각각 2만2,000명과 6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11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더 가혹했다. 지난달 15~29세와 30대는 취업자가 각각 24만3,000명과 19만4,000명 줄었다. 청년 채용 비중이 큰 제조업이 부진해 신규채용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일자리 감소폭은 40대(-13만5,000명)와 50대(-7만4,000명)보다 컸다. 60세 이상은 정부 일자리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유일하게 증가(37만2,000명)했다. 6만명 줄어든 자영업자도 전달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영향이 반영되는 이달부터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경제 충격 장기화 가능성 가장 낮은 국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장기적인 영향에 가장 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뉴스핌'에 따르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일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각국이 팬데믹으로 받는 장기적 경제 취약성을 분석한 모델을 소개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에볼라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등 과거 유행병 위기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사례들을 참고해 경제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31개 항목을 만들어 지수화했다. 이 항목에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폭 ●노동시장 경직성 ●경제 구조

취약성 ●보건 관련 신뢰도 ●경제 및 금융 불균형 ●정책 대응 ●소비자 신뢰도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31개 항목을 모두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3점을 받아 장기적 경제 취약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꼽혔다. 이어 호주, 독일, 중국, 스웨덴,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장기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GDP 성장률은 선진국이 더욱 가파르게 악화됐지만 신흥국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재정적 경기부양의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이 호주나 스웨덴, 미국보다 경제 회복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부에나 팍 4유닛	오바린다 3유닛	오렌지 4유닛	코스타메사 4유닛
방5 화3 3,118 sq 최고위치 Los Coyotes골프장 근처 부엌, 화장실 리모델 인공폭포, 많은 과일나무 \$1,199,000	방5 화3 2,940 sq 최고 위치, 좋은 학군 바베큐 피트, 태양광 \$933,000	방2 화1 / 4개 Garage 수입 \$84,960 \$1,260,000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1,999,000	방2 화1 x 3 방2 화2 x 1 1979년생 연인컴 \$87K 좋은 동네 사파몰 근처 \$1,280,000	방2 화1 x 4 1965년생 연인컴 \$75,300 좋은 위치, 교통 편리 렌트 선호 지역 \$1,375,000
오렌지	터스틴	애나하임 6유닛	터스틴 4유닛	애나하임 4유닛	라하브라 4유닛
방5 화3 2,685 sq 오렌지 힐 근처 최고의 위치, 동네 부엌, 화장실 리모델 준비중 \$1,100,000	방4 화2 1704 sq 안정된 동네, 좋은학군 리모델 부엌 \$795,000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방3/2 화2/1 월인컴 \$7,198 \$1,425,000	방3 화2 x 1 방2 화2 x 2 방2 화1 x 1 Upside Potential 1968년생 좋은 구조/위치 \$1,399,000	방2 화2 x 4 1962년생 연인컴 \$83,850 교통편리, 선호 지역 \$1,230,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